



# 9월부터 재산세 10% 완화된다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세금만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 는 기본 취지에서다.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보완하 겠다고 발표했다. 에디터 박준형 사진 (NOBLE ASSET)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 결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도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 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 인이 밝혔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 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 결키로 했다.

## 재산세 과표 적용률 50%로 동결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 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 은브리핑에서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해 지역에 따라 주택가 격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 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 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과표 적용 비율은 2006년부터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하고 올해부터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2017 년에는 100%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다. 당정은 올해 일시적으로 과표 적용 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내년부터 다시 인상되던 현재 0.5%인 세 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부담 증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 용률(55%)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 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종부세 보완 검토 중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의 개정 보완키로 했다. 6억 원이 넘 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낮아져도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 보유세 경감 효 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6억 원 초과 주

택의 재산세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종부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간 합의했고 종부세 부과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를 낮춰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과세기 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과세표준을 6억 원에 서 9억 원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6억~9억 원 주택을 보유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서울에서만 약 15만 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일부 의원들이 6억 원인 과 세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당론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 전체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으로 많은 조세 전문가들 은 "종부세의 적용비율 조정을 제안했다.

종부세의 적용비율은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액(과세표준\*세율)의 몇 % 를 종부세로 부과하는냐의 것이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9억 원짜리 집이라면 과세표준은 9억 원에서 6억 원을 뺀 3억 원이고 세율은 1%다.

3억 원에 1%를 곱한 300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종부세 적용비율은 이 300만원에서 실제 종부세로 부과하는 비율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에는 과세표준액의 80%가 종부세로 반영됐으나 올해는 90%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100%가 반영된다.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에서 세무사로 활동중인 김정수 전문위원은 "세액 적용비율을 낮춰주면 종부세를 내는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세수 감소 액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의 적용비율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종부세의 적용비율은 세액 자체를 낮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공시지가 12억 6400만원의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당정 합의안대로 재산세 반영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50%이고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추면 재산세 는 245만원으로 당초보다 49억 원 가량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적용 비율을 90%가 아닌 지난해와 같은 80%로 조정하면 종부세는 536만원으 로 58만 원 가량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889만 원에서 782만 원으 로 107만 원이 줄어든다. 당초보다 12% 줄어든다. ☹